

圖書館資料擴充에 따른 諸問題

崔 貞 泰

目 次

- 1. 問題의 提起
- 2. 圖書購入費豫算과 藏書擴充
- 3. 그 後의 課題

1. 問題의 提起

얼마전 教授한분이 大學新聞에 다음과 같이 寄稿하였다. “저녁 아홉시의 서울大學校圖書館의 모습은 서울大學校의 現在의 모습을 상징한다. 6층 巨大한 圖書館建物에는 겨우 1·3층 한 구석에만 불빛이 보인다. 서울大學校의 心臟은 그 6分の 1정도만이 뛰고 있는 셈이다.” 이의 表現을 빌지 않더라도 정녕 이 巨大한 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 아닐 수 없고 象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심장이 鎔鑛爐처럼 타 오르지 못하고 겨우 한 구석에서 감박이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外觀에서 볼때 버젓한 建物이 실상 그가 지니고 있는 內容이 하찮음을 느낄 때 우리는 期待에 들뜬만큼 失望의 自嘲를 反比例로 느끼곤 한다. 지금 서울大學校 圖書館은 大學의 가장 中心자리에서 中樞的인 機能을 띠고서 우뚝하게 가장 넓은 面積을 차지하여 大學의 名物로 과시하고 있다. 最新의 眞空送受器와 貨物專用的 승강기, 照明器具등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훌륭한 大學圖書館의 面貌이다. 그리고 150萬卷을 收藏할 수 있는 大書庫와 4,000席을 일시에 제공해주는 閱覽施設은 自他가 부러워 하는 施設物이다. 그러나 內面要素인 藏書의 內容을 볼때 아직도 不足하고 未洽함을 느끼게 된다.

1975年 5月末 현재 서울大學校 藏書總數는 94萬餘冊이 된다. <表 1> 이것을 時期別로 區分해

<表 1> 장 서 현 황

1975. 6. 30.

분야별		구분	도서 수	비율		
류 이 심 진 분 류	0. 총	류	27,427	2.9		
	1. 철	학	9,830	1.0		
	2. 종	교	4,058	0.4		
	3. 사 회 과 학		88,736	9.4		
	4. 언 어		8,490	0.9		
	5. 순 수 과 학		48,084	5.1		
	6. 응 용 과 학		89,516	9.5		
	7. 예 술		13,788	1.5		
	8. 문 학		26,155	2.8		
9. 역 사		27,192	2.9			
		소 계	343,276	36.4		
재	레	식	분	류	424,357	45.0
규	장	각	도	서	128,184	13.6
미	정	리	도	서	47,524	5.0
총	계			943,341	100	

보면 李朝王室藏書인 奎章閣圖書 12萬 8千餘冊 (13.7%)과 日政時代に 수집된 圖書 54萬餘冊 (57.7%)이며 8·15以後에 수집된 圖書는 27萬餘冊(28.6%)에 不過하다<表 2> 그리고 이 總藏

<表 2> 時期別藏書區分

內 容	期 間	冊 數	比率	年 平 均 確 保 冊 數
奎章閣圖書	1776-1925	128,184	13.7%	—
日政時確保分	1926-1945	541,583	57.7%	27,079
解放後確保分	1945-1974.6	273,574	28.6%	9,266
計		943,341	100%	

書중에는 特殊한 研究資料가 될 奎章閣圖書를 除外한 約 80萬冊중 解放以後에 수집된 도서의 대부분이 效用價値가 적어 實質的인 可用圖書를 約 10萬冊으로 보고 解放後에 수집된 26萬餘冊을 합하면 可用圖書는 總 36萬餘冊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推算된다. 그리고 現在 1萬 6千餘名의 學生을 가진 서울大學校가 解放後 30年間 수집한 圖書確保量은 지금 서울大學校 學生數의 6分 1에 불과하던 當時 京城帝大가 20年동안 수집한 圖書確保量의 桴 切半밖에 안된다.

또한 日政當時 年平均確保數가 2萬 7千冊인데 比해 解放後 우리손으로 수집한 年平均確保 數量은 그의 3分之1인 9千冊에 不過하다. 오늘날 世界는 學問的 情報의 量은 莫大하여 現代를 情報洪水時代라고 불리우고 있음을 勘案할 때 지금까지 서울大學校의 도서수집량이 얼마나 貧弱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圖書購入을

爲한 豫算은 해마다 增額은 커녕 遲減現狀을 가져와 購入에 의한 確保보다 受贈에 의한 藏書補充이 이루어 지고 있어 圖書購入을 위한 豫算增額이 絶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大學校圖書館이 명실공히 均衡된 心臟 역할을 하려면 과감한 圖書確保政策(acquisition policy)과 藏書開發計劃(collection development plan)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울大學校圖書館이 단순히 서울大學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國家的圖書館의 使命과 韓國大學圖書館의 代表的 性格을 띠고 있기에 더욱 남다른 施策과 投資가 要請되는 것이다.

2. 圖書購入費豫算과 藏書擴充

前述한 바와같이 서울大學校圖書購入費 豫算은 微微하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립서울대학교 전체의 1년에산은 미국주립대학의 일개 풋볼팀예산과 맞먹는다고— 하물며 先進他大學 圖書館豫算과 比較시킨다면 가히 그 격차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1972年の 서울大學校 國庫圖書費는 4,700萬원 이었다. 그러나 1973년에는 모든 一般豫算을 20% 삭감한다는 政府方針에 의해서 圖書費도 삭감되어 3,800萬원이 되었고 1974년에는 다시 前年度 豫算의 20%를 삭감한다는 方針으로 말미암아 2,800萬원으로 감소되는 등 每年 遲減現象이 나타나고 있다<表 3>.

<表 3> 도서구입집행실적표

구 분 년 도	국 고	학 생 도 서 비	계	비 고
1972	46,829,000원	6,280,000원	53,109,000원	예비비 30,100,000원
1973	38,557,000	9,803,000	48,360,000	30,000,000
1974	27,789,000	24,244,000	52,033,000	—
1975	(33,000,000)	(47,000,000)	(80,000,000)	(예산책정액)
계	146,175,000	87,327,000	233,502,000	60,100,000

이리하여 2년간에 圖書費는 約 1千 6百萬원 즉 40%가 감소한 것이다. 1975년의 國庫圖書費는 다시 올라서 3,300萬원이 策定되어 약간 올랐다가 하겠으나 그간에 인프레가 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圖書購買力은 1972년에 比하더라도 훨씬 적어진 셈이다.

國庫圖書費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나마 해결할 方法으로 學生들로 부터 自律的經費로서 登錄時에 圖書費를 包含해서 징수하고 있다. 1972년까지 學生圖書費는 學部學生 1人當 每學期 1,200원(醫科大學 및 大學院 學生 1,800원)이었다. 그러나 物價高로 말미암아 1973年 第2學期부터는 學生圖書費를 學部學生 1人當 2,100원(醫科大學 및 大學院學生 2,700원)으로 引上하였다.

이리하여 年間 學生으로 부터 徵收하는 圖書費는 모두 7,000萬원이다. 이 중에서 國庫豫算의 不足으로 감당할 수 없는 製本費와 司書職要員의 補充을 위한 人件費 其他 特殊事業費를 除外하면 純전히 圖書費로만 使用되는 것은 4,700萬

원이다. 여기에 前記한 國庫圖書費 3,300萬원을 合하면 1975年度の 圖書購入을 위한 總可用豫算은 8,000萬원이다.

이 圖書費의 相當部分은 外國學術雜誌購入에 充當된다. 그것은 서울大學校가 每年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1,300余種의 外國學術雜誌가 있다. 1974年度 여기에 充當되었던 金額은 3,200萬원이 었으나 今年度에 있어서는 昨년에 있는 換率 20% 引上과 外國圖書價格의 昂騰으로 因하여 約 5,000萬원이 所要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3,000萬원이 參考圖書와 一般單行本 其他 新聞, 官報 法令集, 追錄등에 所要될 豫算이다. 이처럼 一般圖書를 購入할 豫算이 不足하므로 점차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資料나, 雜誌缺本補充 또는 過去에 사지 못한 重要한 圖書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形편이다.

그러면 서울大學校의 圖書費全體(1974年基準)를 外國의 主要大學의 圖書費와 比較하여 보면 <表 4> 學生數에 있어서 비슷한 美國 하버드大學校의 20分の 1, 컬럼비아大學의 15分の 1, 東

<表 4> 世界主要大學과의 圖書費比較

大 學 名	學生數	藏 書 數	年間圖書購入費	倍 率	調 查 資 料
Harvard Univ.	15,686	8,606,842	\$ 2,104,997	20.3倍	American Library Directory 28th ed. 1972-73
Yale Univ.	9,385	5,829,035	\$ 2,002,815	19.4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28,525	4,009,595	\$ 2,118,548	20.5	"
U.C.L.A.	28,920	3,038,828	\$ 1,639,258	15.9	"
Columbia Univ.	16,172	4,241,130	\$ 1,502,171	14.6	"
Univ. of Chicago	7,363	3,077,270	\$ 1,216,303	11.8	"
Univ. of Illinois	9,310	349,296	\$ 525,000	5.1	"
M.I.T.	7,800	1,314,000	\$ 632,238	6.1	"
Tokyo Univ.	15,424	3,555,047	\$ 1,318,014 (¥461,305,000÷350)	12.8	東京大附屬圖書館月報 V. 11, n. 1 (1972.1)
S.N.U.	16,192	938,503	\$ 103,220 (₩51,610,000÷500)	1	1974년 기준

↗ 京大學의 13分の 1에 不過하고, 學生數가 훨씬 미달하는 예일大學의 19分の 1, 시카고大學의 12分の 1 等으로 나타나 萬만하면 圖書費가 우리의 10倍를 上廻하고 있다. 또한 藏書確保數에 있어

서도 상당수의 우수대학이 우리의 4~5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서울大學校圖書館은 이미 안팎이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손색없

는 이름과 건물에 비해 여기 할당되는 예산은 너무나 미약하다. 이러한 深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劃期的인 藏書發展이 計劃되고 迅速히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定規적으로 每年 계속해서 策定해야 할 圖書費豫算이다. 項目은 다음과 같다<表 5參照>

<表 5> 장서확충을 위한 예산내역

년간정기적인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내역	과거장서부족분보완을 위한 년간도서구입비내역	합 계
학술잡지 40,000원×6,000종=240,000,000원	잡지결호보충	정기 확보비 27,000책 4억원
학생도서 3,000원×1책×16,000명=48,000,000원	25,000원×2,500종×2=125,000,000원	
교수도서 6,000원×10책×900명=54,000,000원	단행본보충	부족보완비 23,000책 2억원
참고도서 10,000원×2,000책=20,000,000원	서양서 3,500원×20,000책=70,000,000원	
제본비 <잡지 1,000원×6,000종×4=24,000,000원	동양서 3,000원×3,000책=9,000,000원	계 23,000책 200,000,000원
<단행본 1,000원×6,000책=6,000,000원		
마이크로필름 및 기타 =8,000,000원		계 6억원
계 27,000책 400,000,000원		

가. 學生利用圖書

- 1) 教科書
- 2) 教養圖書
- 3) 專門圖書
- 4) 學術圖書

나. 教授利用圖書

- 1) 專門的인 單行本
- 2) 學術雜誌

다. 參考圖書

- 1) 一般參考圖書
- 2) 第2次資料(目錄, 索引, 抄錄, 書誌類)

라. 非圖書資料

- 1)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카드, 마이크로
싯쉬
- 2) 음반, 녹음테이프
- 3) 슬라이드

마. 特殊資料

- 1) 古圖書 및 古文書
- 2) 共產圖書籍
- 3) 地圖類

바. 新聞

사. 製本費用

그리고 定規적으로 每年 계속하여야 하는 이
외의 또 하나는 서울大學校가 과거 30年 동안 반

드시 확보되었어야 할 圖書와 其他資料를 購入
치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藏書의 不足量이
累積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지금의 서울대학
교도서관은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 山積해 있
다. 그러면 이것을 위 순서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學生利用圖書確保問題

반드시 教授用圖書와 學生用圖書를 區分한다
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현재 주로 「基本圖書
室」에 학생이용도서가 약 6,000책이 소장되어 이
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총학생수 16,000명이
이용한다면 그 利用率은 3사람에 1책이 된다. 最
소한 학생 1인당 1책씩 기준하여 16,000책의 교
과서 및 교양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본도서실자료는 거의가
오래된 것이여서 새로운版의 改備가 絶실하다.
또 한便으로 위의 基本圖書室을 指定圖書制
(Reserve Book System)의 制度와 並行해서 실
시되면 가장 理想的인 것으로서 學科當 30책만
갖추면 100학과에 3,000책이 되어 어느정도 유
용히 쓰여 질 것이다.

둘째, 教授利用圖書確保問題

현재 서울大學校의 專任教授數는 약 900명이

된다. 教授用 圖書를 特別히 別置해야 할 理由는 없지만 教授 1인당 10책을 기준으로 確保한다면 9,000책의 專門學術單行本으로서 研究의 不便을 더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學術雜誌確保問題

學術雜誌의 利用은 教授나 學生을 막론하고 누구나 보아야 하는 特히 學問하는 이의 基本書이다. 世界 著名한 綜合目標에 의하면 世界各國에서 發行되는 逐次刊行物 種類는 Union List of Serials에 156,000종, British Union Catalogs of periodicals에는 140,000종이며 純粹學術誌雜로 World List of Scientific periodicals에는 60,000종으로 나와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의 10분의 1인 6,000종을 購讀하여야만 最新의 學門의 흐름에 다소 接近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雜誌種數는 購入 1,300종 受贈 1,300종 모두 2,600종인바 이웃 日本 東京大學은 1969年 기준 26,000종으로 지금 (1975年度) 우리의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넷째, 參考圖書確保問題

현재 우리가 參考閱覽室에 收藏하고 있는 資料는 約 9,000책이 된다. 그나마 이 資料들은 相當數의 목은 統計資料, 年鑑등이 많으므로 最新의 것으로 大幅 代替補充하여야 하고 우선 적은 豫算에 急先務로 作業하여야 할것은 全帙(Series) 중에 이(齒)가 빠져있거나 年次에서 비어 있는 것을 檢索補完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非圖書資料確保問題

視聽覺資料와 마이크로 관계자료는 지금당장 時急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世界的인 趨勢에 부응하여 一定한 空間을 有用히 활용하고 資料의 多量確保와 保管을 위해서 體系的인 受入計劃을 세워야 마땅하다.

여섯째, 特殊資料의 確保問題

先祖들의 貴重한 遺産, 古圖書들은 이젠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關

心을 가진다면 發掘해낼 수 있는 韓國學關係資料, 古活字本, 手擇本등에는 아낌없이 投資함이 바람직 하다.

일곱째, 製本費確保問題

製本費는 엄격히 말해서 圖書購入費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圖書의 維持를 위해서 必須不可缺한 것이다. 美國의 各大學에서는 全體 圖書費의 15~20%가 製本費로 쓰여지고 있다. 近來에 이르러 圖書를 複寫하는 量이 急速히 增大함에 따라 그 毀損度가 急増하므로 圖書의 生命을 위해서도 製本費는 絶對必要하다. 製本費는 年間 圖書費의 10%는 計上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前述한 바와같이 서울大學校는 과거 30年동안 確保하지 못한 基本的 圖書와 缺本으로 連結되지 못한 學術雜誌를 具備하여야 한다. 이것은 當該年에 當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長期計劃으로 向後 10年間に 걸쳐 補完토록 (表 5)하는 것이 緊要하다.

3. 그 後의 課題

設令 前項에서 提起한 문제가 解決되고 圖書費가 充分히 確保된다 하여도 곧 이루어지는 것은 決코아니다. 거기에는 資料購入을 위한 妥當한 收書原則이 樹立되어야 하고 妥當한 收書政策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于先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이러한 사람은 使命感이 透徹하여야 하고 學問的 깊이가 있는 圖書館學을 專攻한 분이 좋겠다. 그리고 이미 設置된 “서울大學校 圖書館資料 選定委員會”를 보다 効率的으로 活用하고 各學科 教授들로 하여금 積極적인 參與를 위하여 부단히 接觸하여야 한다. 市中書店에서 提示하는 一方的인 目錄에 依存하는 것 보다 先進外國에서 發行되는 最新의 情報를 입수하고 把握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收書에 따른 制度的 確立이다. 特

히 外國學術雜誌의 購入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市中 業者를 通해서 미리 先支給으로 購讀하고 있다. 先拂하여야 하는 政府의 豫算은 當該年度 雜誌를 그해 4~5월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며 이것이 第三者를 거쳐 發行國에 入金이 될때에는 이미 上半期가 지나게 되고 이 資料 또한 船便으로 우리 손으로 들어 올때에는 벌써 그해 4分の 3이 지나게 마련이다. 最新성과 迅速을 要하는 學術雜誌를 現在와 같이 當該년에 策定된 豫算을 그대로 그해에 執行完了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學術雜誌購入에 있어서만 豫算을 한해 미리 令達한다던가 年間に 걸쳐 執行할 수 있도록 豫算會計法의 改正 또는 例外的인 特別措置가 要求된다.

그 다음은 政策決定者의 圖書館에 對한 理解이다. 흔히 「圖書館」이라 하면 그 利用者도 마찬가지로 建物의 聯想으로 끝난다. 그속에서 專門教育을 받은 館員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理解하여야 한다. 저마다 제 機能에 따라 書誌業

務도하고 閱覽奉仕도 하며 或은 交換, 收書活動도 한다. 가령 學術雜誌現況調査는 엄연한 圖書館의 한 機能이다. 그런데도 大學本部 1個課의 非專門人이 作業하였다면 여기에는 큰 誤謬를 면키 어렵다. 또 教授가 잘 찾지 못하는 資料를 參考司書가 그 情報를 誘導해 주는 것이 圖書館의 役割이며 圖書選擇의 部面에서는 한 學問만 專攻해온 教授의 選擇理論보다 더 體系的일 수 있다. 누구의 指示로 購入했는가 따위의 愚問을 더 이상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政策決定者는 오직 외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館員으로서의 使命感과 肯持를 가질 수 있게 希望을 심어줘야 하며 圖書館建物維持費보다 못한 圖書購入費를 더 이상 放置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大學의 心臟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겨우 6分の 1만의 불빛을 全館이 모두 더 밝게 비추어 지도록 우리 모두 渾身の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